

이민와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한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내가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다.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었다. 한달 수입이 어마어마했었지. 내가 한국에서는 정치인 누구누구를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야.” 등등 왕년에 한가닥했던 때를 지금도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찬란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왕년(往年)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간 해. 곧, 과거”를 뜻하는 단어로 “지난 날”, “한 때”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왕년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삶을 멋있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반짝했던 그 시절에 무언가 보태고 뺄뒀기를 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왕년에 잘 나갔던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여드레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하였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낱낱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메시지 성경, 빌립보서 3: 5-6)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 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빌립보서 3: 7-9) 왕년에 잘 나갔던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으시대며 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년은 부와 명예와 편안한 삶이 대대로 보장된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쓰잘데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왕년에 한국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당대의 유명 여배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많은 광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회사로 스카웃하기 위해 좋은 조건으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제안받기도 하였었습니다만 인생은 왕년이라는 과거를 거쳐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일직선의 삶입니다. 왕년이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 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왕년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만 하겠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우리의 왕년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을 만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내일이면 왕년이 됩니다. ☎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주요 소식

- 1) **예배 참석** 주일 예배는 물론 금요집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 2)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 각 기관별로 성탄절 축하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96차 한카 서부노회** 11월 18일(월) - 11월 20일(수) / 해리스 핫스프링 리조트 (권태욱 목사와 김향덕 장로 참가)

■ 주일학교

- 1) **청소년부 : ‘CAMP’(Christian Art Missionary Program) 운영 중**
 - 오케스트라 연주반 / 웹아트(Web Art)반
 - 기도와 관심과 많은 후원으로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

- 1) **전자 오르간 도네이션** 방홍균 권사와 운반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월-12월 주요 행사 안내

- 1) **목장 모임** 11월 24일(주일)
- 2) **정책 당회** 11월 30일(토), 12월 7일(토)
- 3) **온세대 예배** 12월 1일(주일)
- 4) **성탄절 축하 예배** 12월 22일(주일)
- 5)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화)

■ 교계 행사

- 1)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절 연합 예배** 12월 11일(수) 저녁 7시 (장소: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 (영아부/유아부), 김지형 전도사(인턴)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종
- **반 주** 김민경

코람데오
Coram Deo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서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주일 예배

※는 일어섭니다.

※ **참회와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다같이**

※ **찬양** Hymn 찬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최명원 권사**

환영 및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 **헌금봉헌** Offering **헌금위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8:1-2 **인도자**

설교 Sermon 제목: 구원의 기쁨 **권태욱 목사**

※ **결단찬양/기도** Prayer Together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인도자**

※ **축도** Benediction **권태욱 목사**

축복 및 파송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팀**

오늘의 말씀 요약

● **본 문:** 로마서 Romans 8:1-2

● **제 목:** 구원의 기쁨

지난 주 헌금

헌금 방법 안내

※ 이트랜스퍼 : 이메일 주소 offerings2spc@gmail.com
- 메모란에 이름, 헌금번호, 헌금분류 표시 (비밀번호: SPC2020)
※ 체크 헌금: Pay to order; Surrey Presbyterian Church

예배 위원

주 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대표기도	최명원	임선종	온세대 예배	조석희
헌금위원	양윤정			
점심봉헌	박상원	정의규	최 동	김제니

※ 안내위원: 임경자 교영미 한선에 최명원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예배 11:30 am 본관 1층 유.초등부 11:30 am 본관 지하 중고등부 11:30 am 교육관 청년부 1:15 pm 본관 지하
새벽 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6:00 am 본관 1층
금요 성령집회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1층
제자훈련반	● 어, 성경이 읽히지(화요일 오후 7:30 - 오후 9:30) ● 제자교육 (10주 과정) ▶ 수요일 저녁 7:30 - 9:00 (제자교육 기초반) ▶ 금요일 저녁 9:00 - 10:30 (제자교육 심화반) ● 마더와이즈 2기 “동행” (화, 금 오전 10:30 - 오후 12:30)
청소년 문화교실	금요일 7:30 pm - 9:00 pm 본관 지하 ▶ 오케스트라 클래스 ▶ 웹 아트(Web Art) 클래스

코람 데오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씨리한인교회 합심기도

1. 매일 10명의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 합시다.
2. 기도의 300 용사를 세워 주옵소서.
3. 교회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원주민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